

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

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은 취업과 일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들의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 이전부터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취업 지원이 필수적임.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인식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, '진로탐색 및 취업기술', '직장생활기술' 프로그램의 운영 빈도와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.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직업적 흥미와 함께 직장에서의 태도와 직장 내 갈등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. 그러나, 관련 프로그램 지원은 미흡하여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함. 이를 위해서는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기술과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 경험 제공, 직업훈련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자료

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취업 지원 요구 파악 필요
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¹⁾은 낮은 인지력과 사회성 부족, 정서적 고립 등으로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발달과정에서 어려움이 크지만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. 이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부족은 취업이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일자리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
 -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은 일상생활 기술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나 대인관계 능력 등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함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 이전부터 진로탐색, 직장생활기술 등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취업 지원이 필수적임
- 이 글에서는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양육시설에서 진행 중인 진로·취업지원 실태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이 글은 '변숙영 외 (2022), 「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취업활성화 방안: 양육시설을 중심으로」,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췌, 재정리함.

1)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은 지능지수 71~84에 속하면서(APA, 1994), 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(보호연장 포함) 종료가 예정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(만18~24세)을 일컫음(관계부처 합동, 2022.11.17.).

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「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취업활성화 방안: 양육시설을 중심으로」

- 분석 대상: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경계선지능 사례관리 담당 현장 전문가 172명
- 조사 기간: 2022년 7월 13일부터 2022년 8월 15일(온라인 설문조사)

표 1 |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(단위: 명, %)

| 구분 | 응답자 수 | 비율 | 구분 | 응답자 수 | 비율 | | |
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직위 | 생활지도원 | 26 | 15.1 | 아동복지시설 근무 총 경력 | 1년 미만 | 5 | 2.9 |
| | 자립지원전담요원 | 99 | 57.6 | | 1년~5년 미만 | 52 | 30.2 |
| | 사무국장 또는 팀장급 | 14 | 8.1 | | 5년~10년 미만 | 45 | 26.2 |
| | 시설장 | 3 | 1.7 | | 10년 이상 | 70 | 40.7 |
| | 기타 | 30 | 17.4 | 전체 | 172 | 100.0 | |

주) 직위의 기타 응답으로는 '생활복지사'(n=3), '임상심리상담사'(n=19), '사회복지사'(n=1), '아동보호전담요원'(n=2) 등 이 있음.

02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인식

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중 '진로탐색 및 취업기술', '직장생활기술' 프로그램의 운영 빈도와 중요도가 낮게 나타남
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운영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자립 기술별 운영 빈도와 중요도²⁾를 비교 분석한 결과, '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', '진로탐색 및 취업기술', '직장생활기술'은 자립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되는 빈도도 낮음
- 특히, 자립준비 프로그램 중 운영 빈도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'직장생활기술'(2.80)이며, 양육시설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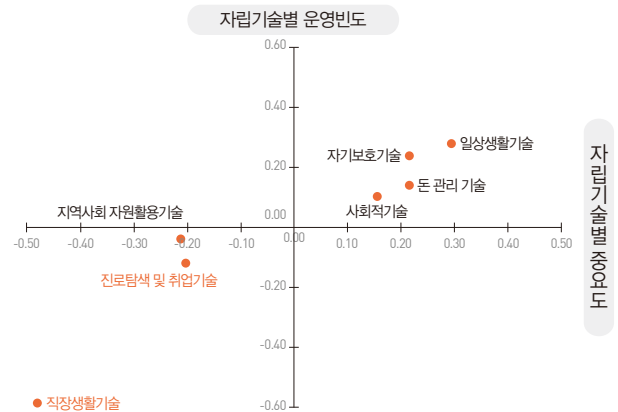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|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자립 기술별 운영 빈도와 중요도 비교³⁾

2) 운영빈도 응답범위는 1점(전혀안함)~4점(주기적 실시)이며, 중요도 응답범위는 1점(매우 낮다)~5점(매우 높다)임.
3) 그래프는 운영빈도와 중요도의 응답값을 각 지표의 평균으로 평균중심화(mean centering=전체 평균-각 항목별 평균, 0='지표별 전체 평균')하여 각 프로그램의 운영빈도와 중요도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임.

현장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진로탐색기술 중 '직업적 흥미'를 중요하게 인식

-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진로탐색기술 프로그램의 중요도 조사 결과, '직업 흥미 영역'(3.80점)이 가장 높고, 그 다음은 '장래 희망에 대해 알아보기'(3.76점), '면접 준비하기'(3.68점)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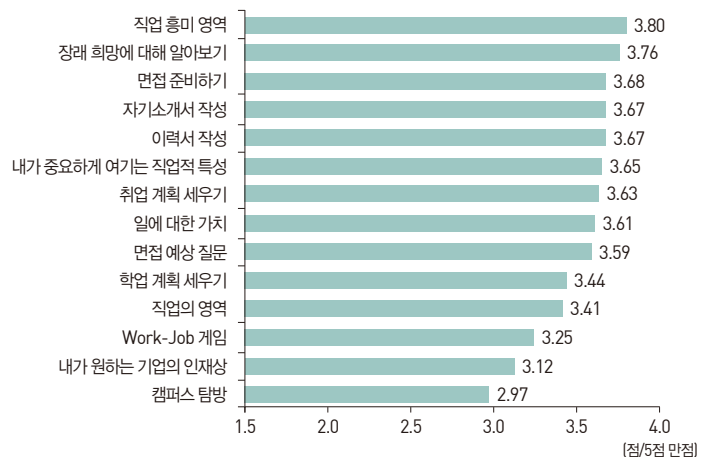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| 진로탐색기술 프로그램 내 중요도 인식 수준

현장전문가들은 취업 관련 자립 프로그램 중 '직장에서의 태도'와 '직장 내 갈등 다루기'를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직장생활기술로 인식하지만 운영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음
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직장생활기술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'직장에서의 태도'(4.16점)가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 '직장 내 갈등 다루기'(4.12점)가 높음
- 현장전문가들이 진로탐색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'나의 직업적 흥미 이해하기'는 실제로 운영빈도도 높고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이 취업할 때 도움 정도 수준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남
- 현장전문가들이 직장생활기술에서 중요하게 인식한 '직장에서의 태도' 및 '직장 내 갈등 다루기'는 취업 시 도움 정도가 높지만 운영빈도가 낮고, 취업 시 도움 정도는 낮지만 운영빈도가 높은 영역은 '직업영역 이해하기'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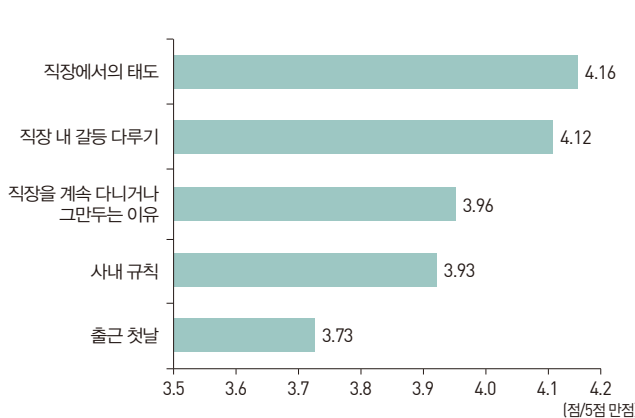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|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 내 중요도 인식 수준⁴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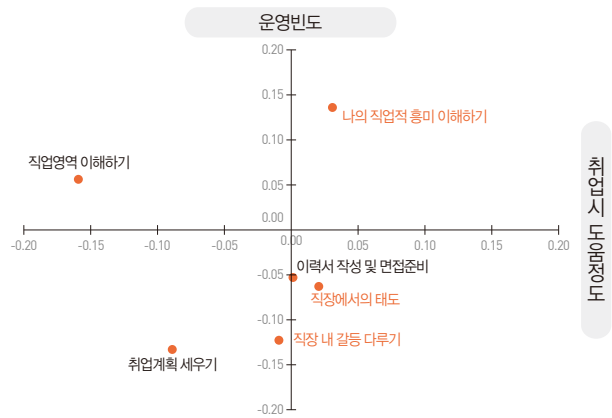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| 취업 관련 자립 프로그램의 영역별 운영 빈도와 취업 도움정도 비교

4) 각 범주명은 프로그램명임.

03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요구도

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관리체제 마련 요구
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'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 부족(65.7%)'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 및 관리 방식에서는 '별도의 지원센터/프로그램을 만들어 취업지원 및 관리(74.4%)'의 필요성 요구가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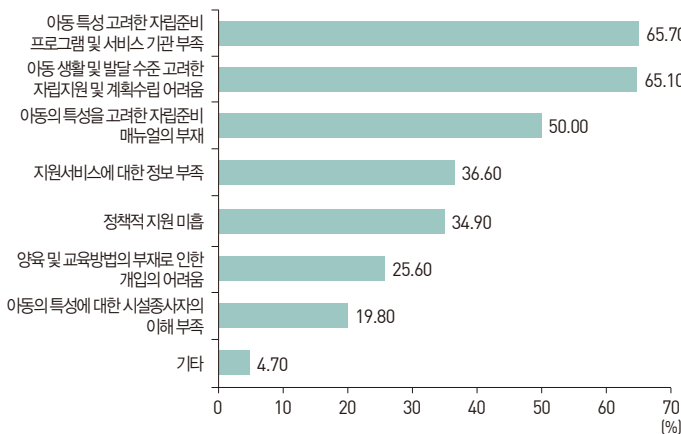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|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준비 저해요인(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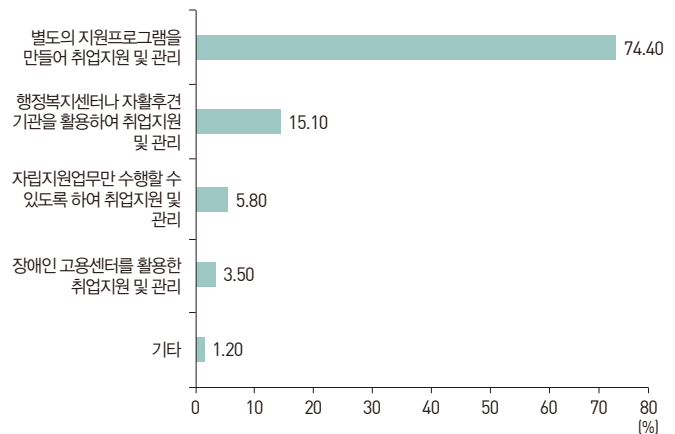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|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및 관리 방식

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훈련과 함께 지속적인 직무체험과 훈련 필요
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후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지원은 '사회성 훈련(47.7%)' > '근무태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(22.7%)' > '직무훈련(19.8%)'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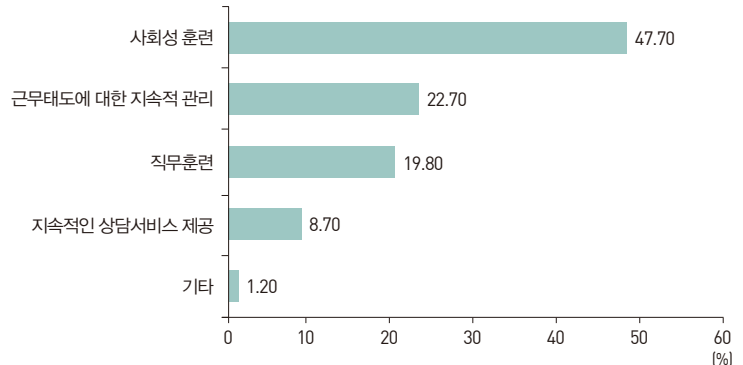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|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직장생활을 위한 필요 지원

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시스템 마련 시급

- 퇴소 후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의 효과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'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시스템 마련(3.93점)' > '전문인력 추가 배치(3.89점)'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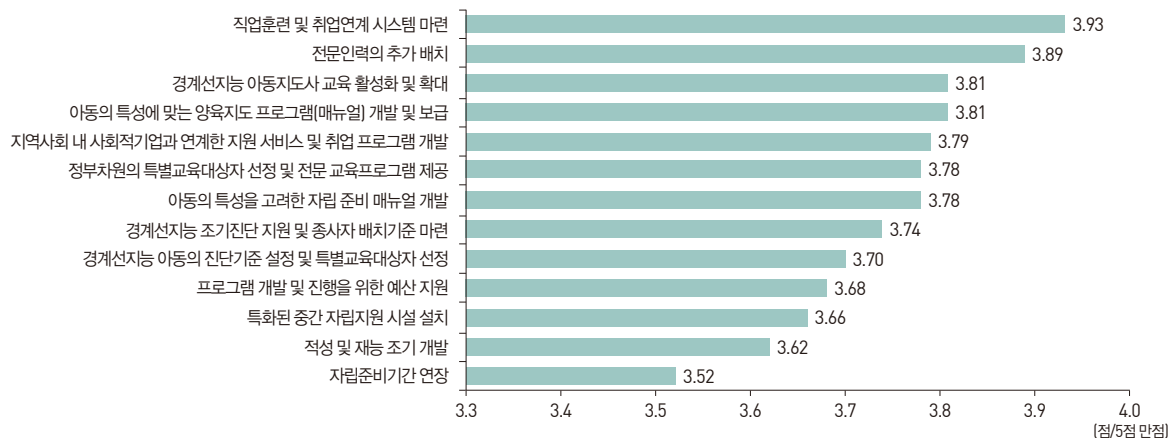


그림 8 |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직장생활을 위한 필요 지원

04 시사점
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및 진로탐색기술과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 및 취업역량을 강화해야 함
-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은 낮은 인지능력 외에도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낮은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,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'직장에서의 태도'와 '직장 내 갈등 다루기', '반복적인 연습과 훈련' 등 주의가 필요함
- 취업 전 흥미를 탐색하고 근무태도 및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(사회적경제기업)의 협업을 통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
-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시기부터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,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격취득을 위해 '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'과 같은 적합훈련 방법 및 그림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 매뉴얼 개발과 평가 적용,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업체험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 확대, 지원체계 마련 등이 요구됨

참고문헌 : 관계부처 합동(2022.11.17.), 「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」.

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(1994).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-IV. Washington, DC.